

지방시(Givenchy) 오트쿠튀르 작품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Givenchy Haute Couture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에 따른 작품의 특성 | |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new aesthetic values pursued by Givenchy, analyzing by the Haute Couture line's chief designer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Hubert de Givenchy pursued modernity, infused with simplicity and structured stability. In particular, Audrey Hepburn, who was a loyal client and used his line in several movies, provided him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exposure which he used to further develop what became known as the "Hepburn" style. The subsequent brief tenure of John Galliano did yield the fantastic and magnificent "Galliano-style", but with irregularity. Based on romanticism, it redefined fashion using a wide range of colors, subjects and decoration. His successor, Alexander McQueen, applied opposite elements using a hybrid technique of pastiche, parody and collage. With innovative inspiration he compromised the concepts of gender, time, space and cultures and recreated futuristic forms of nature, animals, insects and mythical images. Julien Macdonald, who was appointed in 2001 as the Artistic Director for the women's collections, minimized his individual style and preferred feminine, graceful and sexy silhouettes. He breathed fresh life in to Givenchy Haute Couture, reinterpreting the Hepburn style in a modernistic mode. Being passed on the responsibility for both collections (i.e., haute couture and ready-to-wear) in 2005, Riccardo Tisci redefined elegance, combining his unique and tailored gothic style with Givenchy's grace. He is developing the future of Givenchy, experimenting with volume, silhouettes, new kinds of fabric and techniques.

주제어(Key Words) : 지방시(Givenchy),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수석디자이너 (Chief designer)

I.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산물 중에서도 패션은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표현 문화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션의 창조자이자 전달자로서 패션 디자이너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다양하게 흡수하고 표현하여 끊임없이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왔고, 이들에 의해 시도되는 여러 스타일들은 그 시대의 미적가치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스타일 창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대패션의 특성은 새로움을 만드는 절대적 실험실로서 예술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해내고 있는 오트쿠튀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급변하는 문화적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동과 같은 다양한 변화는 하이패션이라 할 수 있는 오트쿠튀르와 대중적인 패션의 구분을 모호하게도 하지만 아직도 오트쿠튀르는 그 우아함이나 상징성, 독창성으로 패션 창조를 위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패션에 있어 최고급 소비지향 문화로서 수용된다.

오트쿠튀르의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트쿠튀르가 갖는 판타지와 이미지이며 또 이를 통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오트쿠튀르를 대표하는 매종 중 하나인 지방시(Givenchy)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면서 매종의 고유한 컨셉과 함께 교체되는 디자이너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패션의 흐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허정아, 1993)가 있고, 기타 패션이론이나 지방시를 거친 디자이너의 작품 연구에서 간단하게 언급될 뿐 교체되는 수석디자이너에 따른 지방시 오트쿠튀르 작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시 오트쿠튀르 매종의 수석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매종의 고유성을 위한 디자인 연계성과 이를 계승하는 여러 디자이너의 개인성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한 매종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또 각 디자이너간의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를 감성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디자인의 전개에 있어 활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전개에 있어 집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연마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은 지방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및 작품집, Vogue, Bazaar, Gap, Collections 등 국내외 패션전문지에 게재된 작품사진과 인터뷰 기사 등을 중심

으로 지방시 수석디자이너들의 패션에 관한 견해를 고찰하였으며, 지방시 오트쿠튀르 라인을 위한 디자인 컨셉 및 조형미를 표현하는 테크닉, 연출 특성 등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시 매종이 소속된 파리 오트쿠튀르에 국한하여 위베르 드 지방시의 1950년대 주요작품부터 현재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인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의 2007S/S 작품까지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트쿠튀르의 정의와 변천

오트쿠튀르는 프랑스어로 고급 주문복 의상점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파리의상조합에 가입하여 조합규정의 규모와 조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고급의상점을 지칭하는데(패션근사전문찬위원회, 1999, p. 445) 대량생산체제의 기성복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게 된다. 과거 익명의 개인들이었던 쿠티리에(Couturier)들은 1675년 루이 14세의 령에 따라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의상을 제작할 최소한의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1776년 여성의상분야에서 '모드상인동업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어 오늘날 파리의상조합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나폴레옹 3세 이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직물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1830년 재봉틀의 등장과 패션산업의 분업화로 인한 공정의 세분화 등으로 1857년 찰스 프레더릭 워스(Charles Frederic Worth)의 최초 오트쿠튀르 매종 성립에 밑거름이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김선영, 2001).

오트쿠튀르의 작품의 변천과정은 크게 순수한 형태의 간결한 라인이 중점을 이룬 1900년에서 1950년대까지와 패션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이 나타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공미선, 채금석, 2003). 20세기 초반기는 예술과 문화에 있어 모더니즘의 열기인 권력에의 지배요, 확고한 사회의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시기로 패션에서의 자율성을 성취한 시기이며(김민자, 1998), 오트쿠튀르 작품에 있어서도 절제에 의한 특정라인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트쿠튀르 작품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된 현대사회의 흐름과 같이 어떤 특정스타일이 지배적인 구조를 이루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와 절충, 그리고 전대의 기준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새로운 미적가치와 조형성, 극단적인 실험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다수를 상대로 자유로운 열린 패션의 시대로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고, 소비패턴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오

트쿠튀르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시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트쿠튀르 업계는 생존전략의 한 방편으로 라이선스 정책이나, 메종의 인수·합병, 새로운 신인 디자이너의 영입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였고, 또 퍼포먼스적인 컬렉션의 개최 및 초대형화, 보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실험적 디자인 등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패션에 있어 최고급 소비지향 문화로서 대표되고 있다.

2.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의 패션 철학

오트쿠튀르 작품에 있어 메종의 디자인 연계성을 위한 디자이너의 디자인 원리를 다루는 방법이나 패션에 대한 철학을 통해 한 메종에서의 각 디자이너의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시 오트쿠튀르 작품의 미적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메종을 대표하는 수석 디자이너들의 패션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려 한다. 지방시 메종의 수석 디자이너는 위베르 드 지방시를 시작으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줄리앙 맥도널드(Julien Macdonald)를 거쳐 현재는 리카르도 티시가 맡고 있다.

1) Hubert de Givenchy

1927년 프랑스 보베(Beauvais)에서 태어난 지방시는 고블랭 직물공장의 감독이던 외조부의 영향을 받아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감각을 전수 받았다. 파리 대학에서 미술과 법률을 전공하는 한편 보자르 예술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지방시는 17세에 자크 파스(Jacques Fath)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다 로베르 피케(Robert Piguët), 루시앵 르롱(Lucien Lelong),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았고, 1951년 자신의 메종을 열었다.

1952년 지방시는 프랑스 일류모델 베티나(Bettina)를 모델로 하여 셔츠용 흰색 코튼으로 디자인 한 첫 컬렉션 개최하였는데, 루시 노엘(Lucie Noel)은 이 컬렉션이 디올의 뉴욕이 발표된 5년 전 이래로 가장 다양하고 새로운 경향을 지닌 성과를 거두었다고 격찬하였다(라사라교육개발원, 2000a, p. 118). 첫 컬렉션에서 발표한 베티나 블라우스로 센세이션한 데뷔를 장식해 '파리의 신동'이라고 불렸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지방시는 시스 드레스나 원단위에 대담한 자수를 놓은 폭이 넓은 드레스 등으로 구성된 6개월 단위의 정기 컬렉션을 개최하였다(라사라교육개발원, 2000b, p. 60).

고급스러운 전통에 뿌리를 둔 지방시는 대중적인 요소를 피하고 고전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시켰고,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은 그의 의상에 매료되어 1953년 만남 이후 가장 충실한 고객이 되었다. 지방시는

1953년과 1979년 사이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퍼니 페이스> 등 16편의 의상을 디자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칭송되는 확고한 지방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또한 1955년 무렵 지방시는 그의 우상이었던 발렌시아가(Balenciaga)와의 만남으로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발렌시아가와 오드리 헵번과의 연계는 지방시 라인을 시간을 초월한 순수함, 고급스러움, 기하학적인 디자인, 장식적인 구성요소에 기초를 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Fashion Insight, 2006, p. 97). 발렌시아가와 지방시는 어떤 컬렉션도 바이어들이 컬렉션의 의상을 주문하는 시점 전까지는 컬렉션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발렌시아가의 영향으로 지방시의 작품은 형태와 컬러를 포함해 더욱 절제 있는 단순형으로 변화하였고, 1950년대 말 파리 쿠튀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발렌시아가는 나에게 단추가 없어도 되는 자리에 단추를 달지 않는 방법과 의상에 꽃을 달아줌으로써 드레스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등을 가르쳐 주었고, 그 충고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라사라교육개발원, 2000b, p. 60)."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지방시는 발렌시아가처럼 재단의 완벽성과 프랑스 디자인의 특성인 전통에 대한 존중, 또 영원의 미를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로 높이 평가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FIT는 1982년 지방시의 30년간 작품으로 구성된 회고전을 열기도 하였는데 발렌시아가 이후 오트쿠튀르의 전통성을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지방시는 1995년 은퇴하였다.

그가 추구한 지방시의 독창성은 과시적이라든가 공격적인 혁신의 추구라기보다 외형적인 단순미, 우아함과 세련됨 그 자체로 여성이 옷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의 패션 철학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2) John Galliano

스페인 지브롤터(Gibraltar)출생으로 영국 세인트 마틴을 졸업하였고 1984년 졸업 작품으로 패션계에 데뷔했는데, 모방과 재창조의 귀재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어스 컷의 일인자로 화려한 의상을 통해 스펙터클한 무대를 연출하고 있고, 컬렉션마다 고유의 스토리를 전개하여 다른 디자이너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갈리아노만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오트쿠튀르 메종의 가치는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오트쿠튀르가 갖는 최대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독창성으로 현대패션에 있어 오트쿠튀르를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시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좋아한다.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실제로 본 것과 감각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실체가 춤을 추곤 한다."고 하였듯이(가재

창, 1999, p. 1063) 그의 작품들은 비 형태의 사물을 형태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미니멀리즘의 진부함에서 벗어나 로맨티시즘을 기초로 하여 역사성, 민족성, 실험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등 모든 측면에서 해체와 왜곡, 재구성의 방식을 추구하여 다양성과 창조적 역동성을 나타낸다. 특히 갈리아노의 디자인에 대한 다양성은 의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메이크업, 무대장치 및 연출에 있어서도 독특하고 다양한 볼거리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이는 갈리아노가 의상과 연관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조화시키는 토털 코디네이션에 주력함으로써 그만의 독창적인 개성의 이미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파리 오트쿠튀르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고, 지방시 메종을 소유한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는 갈리아노를 영입하였다. 이는 오트쿠튀르의 우아함을 재창조하는 동시에 모던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갈리아노의 능력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3) Alexander McQueen

존 갈리아노에 이어 지방시 수석디자이너로 영입된 알렉산더 맥퀸은 런던 동부 출생으로 그의 어머니가 우연히 세빌로(Savile Row)의 TV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디자인 수업을 받게 되었다. 맥퀸은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기 전 로메오 질리(Romeo Gigli)와 엔틱 패브릭으로 유명한 코지 타츠노(Koji Tatsuno)에서 일했으며, 세빌로의 양복점 앤더슨 앤 셰퍼드(Anderson & Sheppard)와 기브스 앤 호크스(Gieves & Hawkes)에서 정교한 커팅을 배우며 경력을 쌓았다(Valerie & Amy, 2003, p. 291).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맥퀸은 1994년 복지기금의 후원을 받아 데뷔 쇼를 가졌고 단 7회의 컬렉션을 선보인 상태에서 1996년 11월 지방시를 맡게 되었으며, 1996년 최연소로 '올해의 영국인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존 갈리아노를 이어 패션계의 반항아로서 맥퀸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즈니스 능력과 함께 엄격한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인 면에서 정상의 자리에 선 디자이너이다. 그는 "나는 관객들이 내 쇼를 보다 못해 나가서 토하기를 바란다. 나는 극단적인 것이 좋다(Teri, 2001, p. 62)." 또 "나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혁명을 일으킬 때 벌어지는 실수를 좋아한다. 그 실수 때문에 패션이 익사이팅(Exciting) 해지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패션이 지루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L' enfant terrible redux, 2006)."라고 밝힌바와 같이, 강간, 교통사고, 기아, 노예 등의 주제를 내걸고 상식을 뛰어 넘는 와일드한 컬렉션을 선보여 왔으며, 대중문화와 상업주의, 기술문명 등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맥퀸은 패션의 상업성과 예술적 창조성에 대해 "패션은 창조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로 시작하면 지루한 컬렉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캣 워크와 상업적인 목적이 서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서로 간에 부족하고 넘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창조성이 시작점이다. 나는 언제나 패션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른 컬러와 프린트, 커팅에 도전한다. 중요한 것은 평형이다. 옷을 만들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규칙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쇼에 칼이나 말안장 등 말도 안 되는 소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발전이고 새로운 시도이다(L' enfant terrible redux, 2006)."라고 밝혀 그의 작품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4) Julien Macdonald

알렉산더 맥퀸에 이어 영국디자이너를 원하는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줄리앙 맥도날드가 지방시의 디자이너로 영입되었다(What happened to them, 2001). 그는 예술학교 시절 섬유 샘플들을 접하면서부터 패션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나는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제안하기보다 새로운 섬유 샘플들을 생각해내는 것들을 더 좋아했다(Julien Macdonald, 2001)."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작업이 영국 잡지 *i-D*와 *The Face*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알렉산더 맥퀸은 그를 주목하여 함께 작업했으며, 샤넬(Chanel)의 니트 디자이너로도 활동했다. 그가 "나는 완전히 새롭고 아방가르드 한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물과 같이 가볍고 얇은 의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코바늘 뜨개질의 새로운 기술을 펼치기도 하였다(Julien Macdonald, 2001).

1997년 그는 샤넬과 맥퀸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비스코스와 24캐럿의 금, 그리고 말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머메이드 드레스는 그해의 가장 좋은 옷 7벌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의상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스스로를 '완전히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극단적인 만큼 미에 탐닉하며, 그의 스타일은 와일드하고 실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황금바늘을 가진 아나크네, 2001). 그는 1988년 자신의 컬렉션에서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유령으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

것은 일종의 조크이다. 패션에서 기대되는 것은 그것이 유머러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가 대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으며, “과거의 컬렉션을 보면 웃음이 난다. 초기에는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었고 오늘날에는 훨씬 더 세련되고 현실적인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교각을 위한 패션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위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Julien Macdonald, 2001).”라고 하여 변화된 자신의 작품세계를 나타냈다.

또 맥도날드는 자신의 패션에 대해 “나는 요즘의 디자인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흑백만 있을 뿐 어떤 복잡한 것도 들어있지 않다. 나는 새로운 요소들을 오래된 것과 결부시키고 항상 이 새로운 것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한다 (황금바늘을 가진 아나크네, 2001).”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그의 패션은 다양한 소재와 색깔이 섞여 있어 결과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어떤 것을 야기 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5) Riccardo Tisci

2005년 지방시 오트쿠튀르의 디자이너로 영입된 리카르도 티시는 1975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태어났으며, 영국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푸마(Fuma)와 코카파니(Coccapani)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루포 리서치(Ruffo Research)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였다.

지방시의 CEO 마르코 고베티(Marco Gobetti)는 “지방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변화이다. 면접 때 티시가 오드리 헵번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지방시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낸 사람으로 오드리 헵번으로 굳어진 지방시에 섹시함과 팜므 파탈적인 매력을 부여했다. 여자의 바디를 타이트하게 드러냈고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뉴 실루엣, 뉴 스트러처, 뉴 엘레강스가 티시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New elegance, 2006).”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시는 “나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프렌치 하우스에서 디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내 스타일은 단순히 잉글리시, 이탈리아인, 프렌치 중 하나가 아니라 이탈리아인의 테일러링, 잉글리시의 반항, 프렌치의 격조와 우아함 이 세 가지 모두 융합된 것이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의 시선이라면 더 새로울 수도 있다(New elegance, 2006).”라고 하여 현대패션의 커다란 화두 중 하나인 내셔널리티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 또 그는 “지방시는 시크함, 귀족적 무드, 로맨티시즘, 그리고 아이러니를 뜻한다. 지방시는 블랙을 즐겨 사용했으며 컬렉션 전체를 어두운 컬러로 구성한 적도 많다. 난 내가 모던함과 볼륨감에 대해 그와 비슷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창조해낸 실루엣 대부분이 내가 추구하는 실루엣처럼 가냘프고 유연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지방시 룩을 들여다 보면 빛과 어두움의 신비로운 조화를 볼 수 있는데 난 이것이 무척 모던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오늘날의 여성에게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샤넬과 에르메스(Hermes)가 파리의 하이 소사이어티를,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파리의 섹시한 밤 문화를 대변한다면 지방시는 엘레강스하고 시크하면서 무엇보다도 고요하다. 지방시는 파리의 시크한 지성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New elegance, 2006).”라고 지방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메종의 이미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이 추구한 패션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의 패션철학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의 패션철학
Hubert de Givenchy	· 전통에 대한 존중 · 외형적 단순미와 우아하고 클래식한 여성미 추구
John Galliano	· 환상적 로맨티시즘과 장식적이고 화려한 강렬한 이미지 추구 · 시공간의 초월과 실험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모든 조형 요소를 해체, 왜곡, 변형, 재구성하여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균형 미 추구
Alexander Mcqueen	· 패션의 극단과 혁명 시도 · 대중문화와 상업주의, 첨단 기술을 패션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 스타일 추구
Julien Macdonald	· 화려함과 클래머러스한 여성성 추구 · 도발적인 새로움과 소재에 대한 탐구 · 모던함과 구조적 볼륨감 추구
Riccardo Tisci	· 전통적인 테일러링에 근거한 클래식과 모던함의 조화로 새로운 여성성 추구

Ⅲ.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에 따른 작품의 특성

지방시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50년대는 예술전반에 걸쳐 순수성과 자율성의 지향을 추구한 모더니즘 양식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대로, 패션 역시 불필요한 디테일과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라인으로 여성의 인체를 표현한 시기이다. 반면 존 갈리아노가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를 맡게 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이 발화되어 확장된 시기로 패션에 있어서도 영역의 확대 및 경계 초월의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이미지의 형태와 및 혼성모방, 비정형적인 조형성, 해체적 표현기법들이 적극 수용되었고,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와 극단적인 다양성, 소비자들의 자율적 취향의 욕



〈그림 1〉 Hubert de Givenchy, 1952 (세계의 패션디자이너2, p. 64)



〈그림 2〉 Hubert de Givenchy, 1960(Haute Couture & Pret-a-Porter, p. 103)



〈그림 3〉 Hubert de Givenchy, 1954 (Harper's Bazaar, 2005. 8)



〈그림 4〉 John Galiano, 1996 (Vogue, 1996. 9)



〈그림 5〉 Alexander McQueen, 1997 (S/S (Vogue), 1997. 4)

구로 인하여 패션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된 보다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장으로서의 열린 패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패션에 있어 새로움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통속적이고 일상적인 그 무엇을 얼마만큼 우아하고 모던하게 표현하는가에 달려있게 되었고, 또 새로운 기술과 시각으로 어떻게 재조명하는지가 디자이너의 재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오트쿠튀르 매종에 있어서도 매종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면서 현대패션의 모든 양식과 기법이 혼재된 전위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매종들이 나타났는데, 지방시는 언제나 이런 패션 현상의 선두에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의 전통적인 매종들이 신인디자이너들을 영입할 때 지방시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줄리안 맥도널드, 리카르도 티시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불러들여 지방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개인적인 패션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이 지방시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작품들의 스타일, 실루엣, 소재 등 디자인 컨셉 및 조형미를 표현하는 테크닉, 연출특성 등을 통해 지방시 오트쿠튀르 작품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Hubert de Givenchy

고전적이고 기품 있는 디자인으로 진정한 쿠튀르 스타일을 표현한 지방시의 특징은 신체를 따라 흐르는 실루엣과 장식을 배제한 단순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크, 코튼, 크레이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럽고 섬세한 디자인을 발표했는데, 그가 "창조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의 창조적 행동이나 대담함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는 대단한 훈련과 완전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특히 나처럼 순수함과 완전함을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것이다(허정아, 1993)."라고 하여 공격적 스타일의 창조성이 아닌 안정적인 구조적인 완성도를 통한 여성미의 구현이라는 그의 작품의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1〉은 그의 첫 컬렉션 작품 중 하나인 일명 베티나 블라우스로 이 새로운 스타일은 그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매력을 불러 일으켰으며 1952년 파리 L'Officiel지에 화보로 실렸다. 특히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이상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 2〉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착용했던 카테일 앙상블로 연꽃 무늬의 술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고(김선영, 2001), 〈그림 3〉은 영화 '사브리나'에 등장한 검은색 꽃무늬 자수가 놓여진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된 것이다. 또 영화 속 오드리 헵번의 페미닌하고 우아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심플한 검은 드레스와 함께 챙이 넓은 드레시한 모자, 커다란 선글라스 등은 그녀의 단점을 커버함과 동시에 귀족적이고 우아한 지방시의 스타일로 구축되었다 하겠다.

헵번 스타일외의 기타 컬렉션을 통한 지방시의 작품을 살펴보면 의상의 형태에 있어 단순함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기본으로 하여 고전미를 나타내는 볼륨과 현대미를 표현하는 비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재에 있어 현대적이거나 미래적인 소재 대신 벨벳, 타프타, 오전디 등 전통적인 고급소재와 트위드, 모직물 같은 무게감 있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 소재들이 갖는 특질을 살려 의상의 구조적인 완성도를 높였으며, 장식의 절제로 간결미를 나타내어 시대를 초월한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Alexander
McQueen,
1997S/S
(Vogue, 1997. 3)



〈그림 7〉
Alexander
McQueen, 1997
F/W (Vogue, 1997.
9)



〈그림 8〉
Alexander
McQueen, 1998
S/S (Collections,
Vol.19)



〈그림 9〉
Alexander
McQueen, 1999
S/S (Collezioni,
Vol.21)



〈그림 10〉 Alexander McQueen,
1999F/W (Vogue, 1999. 9)

2. John Galiano

화려한 색과 디자인의 조화, 볼륨 있는 디자인, 소재의 대비 등으로 귀족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의 지방시 오트쿠튀르는 지방시 은퇴 후 신인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갈리아노는 1996 S/S에 50벌의 의상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에서 왕궁의 무도회장을 연상시키는 크고 높은 무대장치, 지방시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황홀한 비전을 불어 넣은 작품을 선보였고, 1996 F/W에는 컬렉션의 무대를 숲으로 옮겨 '한 여름 밤의 꿈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그림 4〉, 새틴, 밍크, 레이스 등의 소재와 다양한 장식적인 디테일을 이용하여 나폴레옹 제 1제정시대의 의상을 재해석한 환상적인 패션과 스펙터클한 무대 연출로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컬렉션을 발표하여 지방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1년 동안 갈리아노가 보여준 지방시의 스타일은 과거의 복식을 재현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닌 역사를 차용하고 로맨틱시즘을 근거로 한 복식사의 재해석, 다양한 색채와 소재, 장식의 혼합에서 오는 비정형성과 부조화의미를 추구하였으며, 현대인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환상적이면서도 엘레강스한 갈리아노 특유의 지방시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험블스타일로 고정된 지방시의 이미지 변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Alexander McQueen

스스로를 '낭만적인 정신 분열증 환자'로 지칭하는 맥퀸은(The world of McQueen, 2003) 지방시의 첫 컬렉션부터 매종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강렬한 컬렉션을 연출함으로써 늘 디자인에 관련된 화제 거리를 몰고 다녔다.

첫 컬렉션에서 맥퀸은 지방시 매종의 디자인 컨셉을 재해

석하고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그는 "지방시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하는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보여주고 싶었다(97 Haute Couture, 1997)."라고 밝히면서 PVC, 레이스,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였고, 시폰으로 된 여신의 드레스와 광택 나는 금색가죽으로 만든 검투사의 의상, 〈그림 5〉와 같은 금속 코르셋 등을 선보였다. 〈그림 6〉은 앞에서 서로 교차되고 과감한 커팅을 보여주는 실크 개버딘 소재의 재킷으로 모던한 감각이 가미된 관능미를 통해 또 다른 지방시 스타일을 표현하였고, 1997F/W에는 과장된 헤어스타일, 러시아, 아프리카, 영국, 중국풍이 온통 뒤섞인 글로벌 시대의 에스닉 룩을 선보였는데, 〈그림 7〉은 기모노의 착장방식과 자수모티프를 차용하여 서양복의 코르셋과 조합함으로써 기묘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기존 기모노에 대한 개념을 흔들리게 한 것이다. 또 〈그림 8〉은 부채 살로 만든 짧은 볼레로와 한 폭의 동양화를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레이스 자수 장식, 과장된 볼륨의 플레어스커트로 나무와 부드러운 실크공단 소재의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또 지방시의 완벽한 커팅을 맥퀸의 테일러링 기법으로 재해석하였는데 〈그림 9〉는 지방시의 전통적인 커팅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하학적인 모티프를 완전한 대칭적 패턴으로 재단하였고, 오버코트의 앞뒤를 바꾸어 배치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독창성은 컬렉션의 연출방식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1999 F/W에 맥퀸은 "쿠튀르 고객들의 체형과 완벽한 몸매를 지닌 슈퍼모델들의 체형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쇼에서는 모델을 제외한 쇼를 해보고 싶었다(New couture century, 1999)."라고 하면서 〈그림 10〉과 같



〈그림 11〉
Alexander
McQueen, 2000
F/W (Vogue,
2000. 9)



〈그림 12〉
Julien
Macdonald,
2001 F/W
(Vogue, 2001. 9)



〈그림 13〉
Julien
Macdonald,
2001 F/W
(Mode &
Mode, N.316)



〈그림 14〉
Julien
Macdonald,
2002 F/W
(Vogue,
2002. 9)



〈그림 15〉
Julien
Macdonald,
2002 F/W
(Vogue,
2002. 9)



〈그림 16〉
Julien
Macdonald,
2003 S/S
(Harper's
Bazaar,
2003. 5)



〈그림 17〉
Julien
Macdonald,
2004 S/S
(Gap, Vol.
11)

이 리모트 컨트롤로 투명 마네킹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무대를 연출하였고 조명에 의해 살아있는 모델 못지않은 연극적인 등장으로 컬렉션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2000 S/S에는 '영국식 정원의 살인사건'의 영화 세트 디자이너로 유명한 마이클 오웰(Michael Orwell)이 설치한 무대장치에서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무대 위 커튼이 열리자 텍시도차림의 집사가 마치 인형에게 옷을 입히듯이 속옷차림의 모델에게 옷을 하나씩 입히고 모든 착장이 끝난 뒤 모델의 워킹과 함께 시작되게 하였다.

항상 스펙터클 한 형식으로 의상뿐만 아니라 컬렉션 자체가 화제가 되었던 지방시의 맥퀸은 2000 F/W에 "패션은 재미있어야 한다. 이번 컬렉션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진정한 시작을 축하하는데 필요한 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000 F/W Haute Couture, 2000)."라고 하면서 모던하고 핑키한 파티 장을 컬렉션의 무대로 연출하였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피모자와 아예 얼굴을 통째로 가리는 헤어 장식 등 유머러스한 아이템과 광택이 있는 옵티컬 프린트의 의상, 화려한 시퀸 장식의 점프 슈트, 깃털 드레스 등 핑크스타일을 쿠티르적인 고급스러움으로 나타냈다(그림 11).

맥퀸은 혼성모방, 패러디, 콜라주 등의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성, 시간, 공간, 문화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였으며(김주연, 이효진, 2005), 자연, 동물, 곤충, 신화의 이미지를 미래적인 표현과 함께 재현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무엇보다 염색, 몰딩 소재 등의 창의적인 소재로 디자인 포인트를 과장하며 과감한 커팅, 화려한 색채, 형상화된 이미지는 오트쿠튀르 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서 그 조형성을 나타내는데(공미선, 채급석, 2003),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의 와해보다는 대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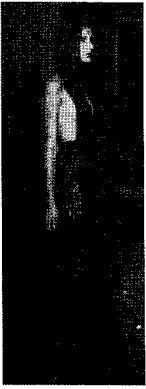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 오는 독창적인 스타일의 혼합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의 맥퀸의 작품에 대해 <Figaro>지는 과연 맥퀸의 옷을 누가 입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파리 오트쿠튀르의 갈등과 조화, 1998) 자신의 파격적인 스타일 위에 지방시의 전통을 더해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우아하고 정교한 테일러링에 의존하던 지방시의 이미지에 맥퀸의 관능미와 글래머러스 스타일이 충돌한 디자인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보다 젊어진 지방시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4. Julien Macdonald

파격적인 스타일로 지방시를 해석한 맥퀸에 뒤를 이어 수석디자이너에 영입된 맥도널드는 2001 F/W에 열린 첫 컬렉션에서 블랙, 화이트, 그레이 위주로 순수한 지방시의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2>는 지방시의 헵번스타일을 재해석한 것이고, <그림 13>은 벤티나 블라우스를 재해석한 것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깃털로 장식된 블루종과 플란넬 셔츠, 소매를 부풀린 전형적인 지방시 라인의 블랙 캐시미어 슈트 등 전체적으로 길고 슬림한 라인으로 지방시의 히트 아이템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2002 S/S에는 '추락천사'라는 테마 아래 지방시의 엘레강스 보다는 블랙, 화이트, 창백한 톤 위주의 어둡고 음울한 고딕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 비대칭 시폰 드레스와 튜닉, 톨스커트, 핸드페인팅 기법과 니트로 명성을 얻은 경력답게 거미줄 같은 효과를 낸 다양한 니트 룩을 통해 지적인 해체적 이미지를 선보였다. 2002 F/W에는 가죽소재와 무지개컬러를 이용하여 보다 자신의 스타일을 가미한 컬렉션을 열었는



〈그림 18〉
Riccardo Tisci,
2005 F/W (W
Korea, 2005. 9)



〈그림 19〉 Riccardo Tisci,
2006 S/S (Gap. Vol. 15)



〈그림 20〉 Riccardo
Tisci, 2006 F/W
(Vogue, 2006. 9)



〈그림 21〉
Riccardo Tisci,
2007 S/S (Gap.
Vol. 17)



〈그림 22〉
Riccardo Tisci,
2007 S/S
(Gap. Vol. 17)

데, 〈그림 14〉와 같이 스트라이프로 커팅하고 리본을 묶은 공격적인 이미지의 블랙 가죽팬츠 슈트, 〈그림 15〉와 같이 금색 비즈로 표면을 장식한 흰색의 가죽 바이크 재킷, 금색레이스 나폴레옹 코트, 네온의 미니드레스, 핑크 핑크 컬러로 염색된 밍크코트 등 색시한 이미지로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 S/S에는 다시 지방시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그림 16〉은 블랙 오간자 소재의 이브닝 트렌치로 관능적이면서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 컬렉션에서 지방시와 헵번의 관계를 추억하는 5벌의 블랙미니드레스로 컬렉션을 시작하여 각 작품에 ‘티파니에서 저녁을’, ‘더 오드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Couture report, 2003). 또 〈그림 17〉은 1920년대 댄서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장식의 드레스로 2004 S/S에 맥도날드는 부풀린 헤어스타일, 컷 아웃기법의 화이트 슈트와 리본 벨트 장식, 레이스 소재 등으로 복고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1 S/S부터 지방시의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전개하면서 맥도날드는 지방시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줄이고 지방시를 대표하는 완벽한 커팅과 우아한 실루엣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도발적인 화려함 사이에서의 균형감을 표현하였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지방시를 풀어내었던 맥퀸에 비해 무난하고 안정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여성스럽고 고상하면서도 색시함이 드러나는 실루엣을 선보였고 지방시의 헵번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지방시의 오트쿠튀르를 표현하였다.

5. Riccardo Tisci

지방시가 패션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아함이라고 말한 티시는(New elegant boy, 2007) 첫 컬렉션인 2005 F/W에서 맥퀸보다는 덜 공격적이고 맥도날드보다는 품위가 있는 작품을 선보였고, 관객이 모델과 똑 같은 눈높이에서

옷을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 지방시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신 자신의 스타일인 세기말적 고스 룩을 선보였다(그림 18). 티시는 당대엔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하우스를 대표하기에 진부해진 오드리 헵번을 연상시키는 컬렉션이 되지 않도록 연출하였고, 블랙과 화이트로 통일된 컬러, 다양한 모피와 레이스의 활용, 우아한 드레이프, 빅토리안 스타일을 재해석한 드레스 등 세련된 감각을 선보였다.

2006 S/S에 티시는 “지방시 쿠튀르가 너무 귀중한 컬렉션이므로 특별한 장소에서 관람형태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밝히면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쿠튀르 컬렉션을 개최했는데(The couture must go on, 2006), 지방시의 1954년 ‘La Rose’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들을 선보였다. 〈그림 19〉와 같이 여비서풍의 안경과 레이스 가면, 레드 시퀀으로 장식된 드레스로 워트 있는 연출을 보여주었고, 또 블랙과 화이트, 연한 복숭아색, 강렬한 레드 컬러를 기본으로 섬세한 레이스와 시폰 소재 위에 다양한 장미문양의 이미지를 더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작품을 선보였다. 2006 F/W에는 블랙, 화이트, 브라운, 베이지 컬러를 중심으로 고딕적인 요소와 미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약간의 연극적인 연출로 자신의 스타일인 고스 이미지를 로맨틱하게 해석하였다(그림 20).

〈그림 21〉은 모델들의 얼굴을 묻어버릴 것 같은 과장된 칼라의 거대한 오버코트로 극적이고 다크한 로맨틱시즘을 표현한 2007 S/S 작품이다. 이 컬렉션에서 티시는 낡은 창고에서 무대의 한쪽 벽을 커다란 유리로 만들고 유리에 끊임없이 미세한 물방울이 흘러내리게 한 다음 그 뒤편에 모델들을 세우고,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와 시멘트 바닥 위에 흥건하고 인 물, 높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안개 같은 빛으로 음산하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무대를 연출하였는데, 컬렉션 전체는 물과 배, 해군복 모티브, 인어이미지로 연결되게 하였다. 긴 테일 드레스에 해체된 해군 재킷을 매치한 작품을 선두로 <

그림 22)와 같이 거대한 해군모자와 해초들이 꽃처럼 물결치는 아름다운 프린트의 드레스, 블랙, 오프 화이트, 옐로 등 다양한 컬러의 머메이드 실루엣 드레스와 구조적 형태의 거대한 볼륨감 있는 드레스들로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방시 오트쿠튀르를 표현함에 있어 티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테일러링을 중심으로 자신의 고스 스타일 위에 지방시의 우아함을 접목 시켜 새로운 엘레강스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오트쿠튀르만의 환상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극적인 요소의 연출, 새로운 패브릭, 그리고 테크닉을 이용한 볼륨과 실루엣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방시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방시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결론

현대 오트쿠튀르 디자인은 패션 트렌드와 함께 자연주의

적 이미지, 동·식물, 잠재된 심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정신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인체의 노출과 밀착된 실루엣, 의복형태의 비정형화, 소재의 부조적 경향, 다양한 색채혼합과 과다장식 등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전반에 걸쳐 해체와 왜곡, 전위 등의 비정형성을 추구하며 고급스러운 수공예적인 기술의 극대치로 오트쿠튀르만의 다양하고 복합된 조형미를 추구한다. 패션 창조의 산실로서 현대패션을 이끄는 오트쿠튀르 메종의 대표주자로서 창조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방시 오트쿠튀르의 각 디자이너별 작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위베르 드 지방시는 단순함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기본으로 한 형태로 고전미를 나타내는 볼륨과 현대미를 표현하는 비대칭의 조화를 추구하고, 특히 소재에 있어 벨벳, 타프타, 오건디, 울 등 전통적인 고급소재들을 사용하여 이 소재들이 갖는 특질을 살려 의상의 구조적인 완성도를 높였으며, 장식의 절제로 간결미를 나타내어 시대를 초월한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헵번스타일을 통해 지방시 오트쿠튀르의 기본적인 틀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지방시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별 특성

디자이너	활동기간 및 시대성	디자인 컨셉	특성
Hubert de Givenchy	1951 ↓ 1995	· 장식의 절제와 배제를 통한 간결미와 단순미 · 무게감 있는 소재, 소재의 특질을 강조한 구조적 형태 · 엘레강스, 클래식한 스타일	· 지방시=헵번스타일로 특징 지움 ·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조형성을 통한 우아한 여성미 추구
John Galiano	↓ 1996	· 복식사의 현대적 재해석 · 다양한 색상과 소재, 장식의 혼합 · 감성적 이미지 연출 · 환상적이고 스펙타클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적 컬렉션	·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의 혼합 및 절충을 통한 환상적 로맨틱시즘 추구 · 비정형과 부조화의 미 추구
Alexander McQueen	↓ 2001	· 테일러링을 바탕으로한 해체적, 관능적 스타일 ·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자연과 과학, 하위문화와 고급문화 등 모든 요소의 절충과 경계초월을 통한 파격적인 스타일 · 전통적이고 화려한 소재 및 가죽, 금속, 나무, PVC, 폴딩소재 등 이질적 소재 · 모델대신 마네킹의 사용, 퍼포먼스적 컬렉션 등 파격적인 컬렉션 연출	· 왜곡과 변형, 파괴 등 해체의 미 추구 · 혼성모방과 패러디, 콜라주 등 하이브리드 기법을 통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과 조형성 추구
Julien Macdonald	↓ 2004	· 여성적, 관능적 스타일 · 과거 지방시 메종의 히트 아이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다양한 기법의 니트와 가죽 등을 이용한 도발적 펑크스타일	· 파격적인 스타일보다 메종의 전통적인 디자인 컨셉 유지와 화려하고 섹시한 여성성의 조화 추구
Riccardo Tisci	↓ 현재	· 테일러링에 기초한 고스 스타일, 환상적 로맨틱시즘과 고스 룩의 결합 · 새로운 소재의 조합과 볼륨감, 컬러와 테크닉의 시도 · 극적인 요소의 연출과 구조적인 실루엣	· 지방시 전통을 헵번 스타일에서 벗어난 로맨틱 고스룩으로 재해석 · 뉴 실루엣, 뉴 스트러처, 뉴 엘레강스 추구

1년 동안이었지만 갈리아노가 보여준 지방시의 스타일은 로맨티시즘을 근거로 한 복식사의 재해석, 다양한 색채와 소재, 장식의 혼합에서 오는 비정형성과 부조화의미를 보여주었으며, 현대인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환상적이면서도 화려한 갈리아노 특유의 지방시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헵번스타일로 고정된 지방시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백퀸은 혼성모방, 패러디, 콜라주 등의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성, 시간, 공간, 문화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였으며, 자연, 동물, 곤충, 신화의 이미지를 미래적인 표현과 함께 재현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의 와해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 이를 과감한 커팅, 화려한 색채와 창의적인 소재, 형상화된 이미지 등 오트쿠튀르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켜 독창적인 작품성을 표현하였는데, 지방시의 전통 위에 자신의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로 시대를 앞서가는 보다 젊어진 지방시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지방시를 풀어내었던 백퀸에 비해 안정적인 작품을 선보인 맥도날드는 지방시를 대표하는 완벽한 커팅과 우아한 실루엣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도발적인 화려함 사이에서의 균형감을 표현하였다. 지방시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줄이고 여성스럽고 고상하면서도 섹시함이 드러나는 실루엣을 선보였고 지방시의 헵번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지방시의 오트쿠튀르를 표현하였다.

지방시 오트쿠튀르를 표현함에 있어 티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테일러링을 중심으로 자신의 고스 스타일 위에 지방시의 우아함을 접목 시켜 새로운 엘레강스를 표현하였다. 또한 오트쿠튀르만의 환상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극적인 요소의 연출, 새로운 패브릭, 그리고 테크닉을 이용한 볼륨과 실루엣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방시만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는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패션산업의 조직력과 보호정책, 도제 중심의 인력 양성 및 디자인의 창조성을 중시하여 프랑스 패션을 대표하는 오트쿠튀르는 그 독창성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패션에 대해 디자이너 자신이 가진 문화와 취향을 개인적인 접근방식으로 해석해내는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트쿠튀르 메종의 명성은 디자이너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교체되는 수석디자이너의 개인적 특성과 메종 1세의 디자인 컨셉을 전수, 유지함에 따라 변화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로 지방시가 갖는 명성 역시 이러한 요소로 인한 디자인적 독창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오트쿠튀르 전성시기에 오트쿠튀르를 대표하는 것은 의상 그 자체였지만 오늘날 오트쿠튀르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 이미지이며, 핸드백·신발·화장품 등 기타 패션잡화들, 그리고 라이선스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명 오트쿠튀르 메종들이 그 역사를 더해가는 동안 패션에 대한 시각과 취향의 변화, 그리고 젊어지는 고객층들로 인하여 각 메종들은 보다 극적이고 젊은 이미지의 메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국적과 나이를 불문한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영입하여 변화를 시도하였고, 지방시 역시 많은 디자이너들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개성을 나타내는데 더 큰 역점을 두고 지방시 메종이 표방하는 고유한 디자인 컨셉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 현대패션의 모든 양식과 기법이 혼재되어 전위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메종으로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전통성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전환점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유서 깊은 브랜드의 계승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전통의 유지가 아닌 보다 미래적인 시각에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 브랜드의 고유성, 그리고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보다 깊고 넓은 새로운 관점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방시 오트쿠튀르 컬렉션의 모든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각 디자이너에 따른 각 시즌별 대표적인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 분석에 의한 것으로 실제 소재나 색상, 장식 등을 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가재창(1999). **패션디자이너199**. 서울: 정은도서.
- 공미선, 채금석(2003). Christian Dior 오트쿠튀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복식**, 53(2), 57-70.
-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 **복식**, 38, 369-392.
- 김선영(2001). 오트쿠튀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연, 이효진(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300-313.
- 라사라 교육개발원(2000a). **20세기 유행의 변천사2**. 서울: 라사라 패션정보.

- 라사라 교육개발원(2000b).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2*. 서울: 라사라 패션정보.
- 파리 오프쿠튀르의 갈등과 조화.(1998. 9). *Vogue*, 54.
-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허정아(1993). 위베르 드 지방시 디자인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금바늘을 가진 아나크네.(2002. 12). *Harper's Bazaar*, 210.
- Couture report.(2003. 5). *Harper's Bazaar*, 342.
- Fashion Insight(2006). **Haute Couture**. 서울: 패션인사이트.
- Julien Macdonald.(2001. 12). *ELLE*, 211.
- L'Enfant terrible redux.(2006. 10). *Harper's Bazaar*, 364-367.
- New couture century.(1999. 9). *Vogue*, 154.
- New elegance.(2006. 6). *Harper's Bazaar*, 96.
- New elegant boy.(2007. 5). *Harper's Bazaar*, 315-317.
- Teri, A.(2001). *패션디자이너의 세계*. 박문성(역). 서울: 씨엔씨미디어. (1999년 원저발간)
- The couture must go on.(2006. 3). *Vogue*, 192.
- The world of Mcqueen.(2003. 5). *Harper's Bazaar*, 293-295.
- Valerie, M., & Amy, H.(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역). 서울: 시공사. (1999년 원저발간)
- What happened to them.(2001. 5). *Harper's Bazaar*, 98.
- 97 Haute Couture.(1997. 4). *Vogue*, 131.
- 2000 F/W Haute Couture.(2000. 9). *Vogue*, 104.

접 수 일 : 2008년 7월 23일

심사시작일 : 2008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27일